



The Holy City 2022

5. Apr._8.May

Kim, Dongyeon

김동연 개인전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세상을 보는 독특한 시선 : A Distinctive View of The World

Dr. Annette Lagler
Ludwig Forum fuer International Kunst, Aachen

김동연의 작품은 2006년부터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그의 환경이 예술적 발전을 지지하는 동시에 이제 자신의 아이디어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기를 요구한다. 이때에 스케치를 비롯해 그림과 함께 단 시간 내에 도자기와 알루미늄 소재로 된 수많은 오브제 작품들이 탄생하는데, 그는 작품들에 자신이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온 예술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추진력을 과감하게 투입한다.

새 작품의 중심에는 1920년대 건축사에 정착한 건축구조와 도로체계가 있다. 직사각형, 직육면체, 또는 탑 모양의 오브제들이 마치 전면에 창살이 처진 건물, 또는 대도시의 고층 빌딩 같이 보인다. 구조적 건축형태를 가진 작품들은 신즉물주의 경향을 띄며 모던하고 추상적이고 기능적이라 평가된다. 반면에 규범적이고 익명의 양식이라 비판되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마다 관점을 달리하게 만드는 다의성이 김동연의 작품에 나타나는 대표적 특징이다. 어떤 작품은 구조적으로 완벽한 기하학과 뾰족한 모서리의 대조를 통해 절제된 기호를 연상시키거나 또는 도널드 저드 Donald Judd 와 유사한 미니멀리즘의 완벽주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철골구조물은 결코 완결된 기하학적 형태가 아니다. 철골구조물은 토대와 받침대가 없이 벽에 걸쳐져 있어 마치 뒤집어진 새장, 바구니 또는 그물처럼 보인다. 어떤 구조물은 구부러지고 비스듬하다. 이를 통해 김동연은 미래의 건축양식에 태고의 특색을 부여한다. 여전히 구성 중에 있는 뼈대만 있는 건축물은 쉽게 부서질 것 같이 불안정해 보인다. 아마 보는 사람들은 구조물이 완성되기도 전에 무너져 내릴 듯,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리라.

김동연은 이와 같은 종류의 작품시리즈에서 골조형태의 건축물 정면에 중심투시도법으로 설계도를 그리고 레이저로 커팅해 규모를 크게 만든 후, 벽 또는 바닥에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따라서 보기에는 3차원 정육면체 같지만 사실상 이른바 건물이라는 것이 꼭 얇은 판 같이 납작하고, 더 나아가 그림자처럼 거의 형체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 드리워진 그림자에 의해 가상의 깊이가 다시 채워지고 더 넓어진다. 이런 작품을 통해 김동연은 관람객을 현상과 실제, 모델 조각과 공간적 조형성에 관한 복합적 철학 담론으로 끌어들이는다.

김동연이 작품 활동 초기부터 관심을 가졌던 또 다른 모티프는 길과 도로의 이어짐이다. 2008년부터 그는 무엇보다 1920년대에 입체교차로를 도입한 아우토반의 교차로 디자인

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원형으로 오른쪽 커브를 돌게 되어 있는 입체교차로에 서로 연결된 여러 차원에서 직선 도로들이 교차한다. 여기에서 여러 갈래의 도로들이 직선과 곡선의 조화로운 연결을 이루어 우아한 곡선의 양상들로 보이는 효과를 낸다. 김동연은 원래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 철저히 계획된 기능적 구조를 적절히 조율된 에너지 흐름의 상징으로 변화시켰다. 이 작품에도 예술가는 원과 교차로를 잘라 얇고 긴 철조 구조물에 걸쳐두는 방식으로 다시금 ‘대립상’을 탄생시킨다. 그가 이전에 만든 ‘매달려 있는 도시들’과는 달리, 여기 자유롭게 떠다니는 거리에서는 그 어떤 체계적 시스템도 카오스 구조에 굴복하고 만다. 복잡하게 발전되어가는 도로시스템에서 마치 덩굴식물이 무성하게 번성하는 형상과도 같은, 보는 사람의 시야에 따라 무한한 연상과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미지의 기호가 생겨난다.

2009년에 김동연의 예술무대에 눈에 띄게 새로운 모형인 물, 소위 몬스터가 등장한다. 몬스터는 주머니 모양의 조그만 모형이다. 점토덩어리로 거칠게 만들어놓은 것 같다. 이 모형은 마치 눈사람처럼 뭉쳐진 세 개의 조그만 덩어리가 각각 머리, 상체, 하체를 표현한다. 또 조그만 점토 덩어리 두 개가 눈이 되고, 펭귄 팔 같은 뾰족한 모양이 몬스터의 두 팔이 된다. 둥글둥글한 모습을 한 몬스터는 어색하면서도 호감이 가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인물들은 마치 걸리버 여행기에서나 나올 것처럼 어떤 것은 아주 크고, 어떤 것은 아주 작다. 자그마한 모형군단이 사람들의 일상을 재현한다. 다시 말해 몬스터 모형들은 짓고, 구성을 하고, 관찰하고 구경한다. 몬스터들이 운동경기장에 앉아 있는 관객이 되는가 하면, 연극에 참석하기도 한다. 또는 3차원의 기하학적 공간구조를 만드는 데 열심인 건축가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 이들은 지구인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더라도 하듯 여기저기에 자유롭게 달라붙어 있다.

도자기로 만들어진 89-91cm의 ‘거대한 몬스터’들은 아시아 도자기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검정색, 흰색, 담녹색으로 만들어졌다. 이 세 가지 색은 전 인류를 상징한다. 모형들은 마치 다른 세계의 유령처럼 전시공간을 떠돌아다니거나 조그만 초상들의 전시를 호기심어린 눈으로 관찰한다. 김동연은 이미 전에도 인간의 형상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해 왔다. 예전 작품은 구름 형태의 형상으로서 좁은 굴뚝에서 비즈니스의 여체를 연상케 하는 연기구름이 몽클 몽클 솟아오른다. 반면 이번에 몬스터들은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천진한 수법으로 뭉쳐놓은 듯하다. 조금 통통한 형태와 단순한 스타일이 우리가 몬스터라고 하면 으레 떠올리는 무서운 느낌을 없애준다. 이 환상의 인물들은 어린이 같은 천진한 창조성이 무서운 유령을 선한 유령으로, 그리고 비이성적 공포를 긍정적인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김동연은 자신이 예술에서 늘 거듭 탐구해 온 분야인 산, 강, 호수에 눈을 돌린다. 예술사에서 볼 때 가장 오래된 모티프를 분석적으로 파고든 그는 현상과 실제, 피상적

인 것과 내면을 향한 깊은 탐색이 하나가 되는 오브제로 향한다. 김동연은 가시적으로 평평해 보이는 수면과 호수 깊이 숨겨진 물과 지면이 끈이 되어 하나의 신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본다. 시선과 인식의 결합을 통해 이제 호수는 거꾸로 머리에 쓴 원뿔이 되며, 이때 원뿔에는 구조적 관념을 상징하는 이음새가 있다. 두 개의 호수 봉우리 위에 고대 철학의 두 거장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입상이 서 있다. 이 입상은 철학예술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자 전통적인 예로 꼽히는 라파엘의 <아테네 학당>에 나오는 인물에서 유래한다. 김동연에게 있어 두 철학자는 육체와 더불어 순수관념의 '이데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상징한다. 작품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김동연의 예술에는 육체와 정신, 현실과 이상이라는 두 영역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듯 끊임없이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김동연의 작품세계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예술가의 독특한 시선에 동참할 수 있다.

2006 heralds a new stage in Dong-Yeon Kim's oeuvre. Dong-Yeon Kim's circumstances foster his artistic development and demand that he realise his ideas on a grand scale. Within a brief period of time Kim makes numerous series of ceramic and aluminium objects, accompanied by drawings and paintings, systematically enlarging his artistic vocabulary and establishing new self-evident impulses.

Architecture and systems of pathways which have their historical roots in the 20's are central to this new phase. The square, oblong or tower-shaped objects resemble buildings with lattice-like facades, models of metropolitan multi-storey high-rise architecture. They bear witness to the structural building designs regarded as modern, abstract and functional by the New Objectivity movement. This style also had its critics who regarded it as anonymous and standardized an ambiguity that is amplified in Kim's works. The perfect geometry and sharply delineated contrasts of some of the constructions recall graphically reduced characters or perfectionist works of minimal art such as those by Donald Judd. However the grid constructions are not self-contained, geometric forms. They have neither foundations nor a base plate but appear to stand on stilts and look like upturned cages, baskets or fish traps. Some of them are rather bent and crooked, giving the futuristic architectural style an archaic touch. The grid-like architecture of the facades looks as if it is still under construction and appears fragile and instable. One could easily conclude that the buildings are already threatened with collapse before completion.

Also belonging to this body of works is a series in which Kim uses central perspective to make two-dimensional drawings of the grid-like architecture of the facades, enlarging them, cutting out the silhouettes and spacing them at intervals on the walls and floor. These works look like three-dimensional cuboids whereas in reality the supposed volumes are entirely flat and nearly as disembodied as shadows. The illusion of depth however is supplemented and compounded by the actual shadows. Kim draws the viewer into a complicated philosophical discourse on appearance and reality and on model-like sculpture and two-dimensional representations of space.

Another cyclic motif and one that has captivated Kim right from the very start of his artistic production is concerned with the routing and configuration of streets and roads. In 2009 he turns to designs for motorway junctions derived from the so-called cloverleaf loop solutions favoured in the 20's. Straight motorways intersect on various levels connected by ring-like right hand bends. De-contextualized the motorway junctions look like zestful, elegant emblems resulting from the harmonious interconnection of straight and curved lines. Kim mutates the original functional construction for a sophisticated traffic control system, designed to facilitate the ordered flow of traffic despite the high volume of cars on the road, into an allegory of steady energy channels. Here too the artist generates a "counter image" by cutting up the circles and crosses only to guide them through the room above the heads of the observers as a garland of thin paper snippets. As opposed to his earlier hanging cities, the suspended streets have abandoned any regulative system in favour of a chaotic structure. The traffic system has become a rampant, delicate, floral ornament, like a climbing plant composed of letter fragments.

A surprising development in Dong-Yeon Kim's oeuvre is the modelled figures, the so-called monsters that also make their debut in 2006. They are baggy, chunky creatures, which look as though they have been roughly fashioned out of plasticine. The figure consists of three spherical elements suggesting a head and upper and lower body, much like a snowman. The eyes are two small balls and the arms two flipper-like protrusions. As a result the monster appears awkward and sympathetic.


Like in the fable of Gulliver's Travels the figure appears at times to be enormous and at others miniscule. The band of tiny figures performs human activities such as building and constructing, observing and looking. As spectators they animate the tiers of an imaginary arena and participate in a theatrical performance, or assume the roles of diligent builders of a three dimensional, geometric space on which they

clamber about, apparently defying the laws of gravity.

The 89– 90cm high ceramic "big monsters" are variously black, white or a pastel shade of green, a colour commonly found in traditional Asian ceramics. The colour range symbolizes all of humanity. The "big monsters" roam through the exhibition space like ghosts from another world or observe the travails of their tiny counterparts with interest. This is not Kim's first examination of the human figure. Previously he made cloud-shaped creatures, reminiscent of a Venus-like female form that emerge from narrow chimneys as voluptuous clouds of smoke. The monsters by contrast might have been made by a child from plasticine. The naïve workmanship and the monster's chubby appearance negate any threat they might otherwise convey. These make-believe figures demonstrate how child-like creativity can unceremoniously transform spooky ghosts into benign spirits and irrational fears into positive energy.

Finally Dong-Yeon Kim turns to his perennial artistic fascination with mountains, rivers and lakes. His analytical grasp of such motifs, which in art historical terms are amongst the oldest that exist, has lead Kim to make objects in which external appearance and understanding, an exploration of surfaces and of depths, merge into one. Dong-Yeon Kim understands something that, to the normal human eye, looks like a flat disc or strip as a voluminous body. By combining vision and knowledge he turns a lake into an upside-down cone with a visible seam to indicate a mental construction. Enthroned on two upturned lakes that form twin peaks are the two central figures of ancient philosophy, Aristotle and Plato. The figures have been taken from Raphael' s "School of Athens", presumably the most famous and frequently cited example of philosophical art. The painting represents the profound esteem in which the Renaissance held the philosophical teachings of ancient Greece. For Kim both thinkers emblemize the philosophical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of a notional "ideal" being alongside purely physical existence. He combines both states in his art, which therein finds it validation.

Despite its variety, Kim's distinctive view of the world is the central theme running through his entire oeuvre

- 
- ▲ Flat Building-D_ 91x121cm hardbord,thread, tracing paper, pencil 2013
 - ▼ The Holy City_ 106x128x100cm veneer bord,cloth 2009
 - ▼ The Holy City12_ 57x293x262 plywood, cloth,acrylic 2012



▲ Matthew 9:35-39_24x17, 30x21cm Black ink on paper 2018~2022
▼ John 3:16_158x23.5x72cm wood, plaster, wire, cloth 2011



▲ Lake_ 21x15cm Blue ballpen on paper 2011
▼ Lake_ 59x59x105cm plaster, wire, pencil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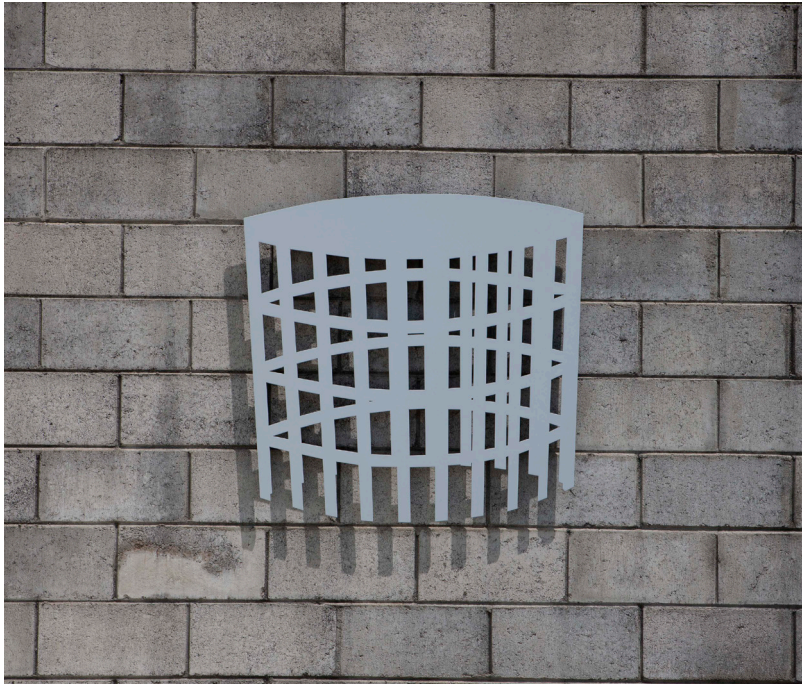
untitled_ 22x29.5cm Fountain pen, Colorballpen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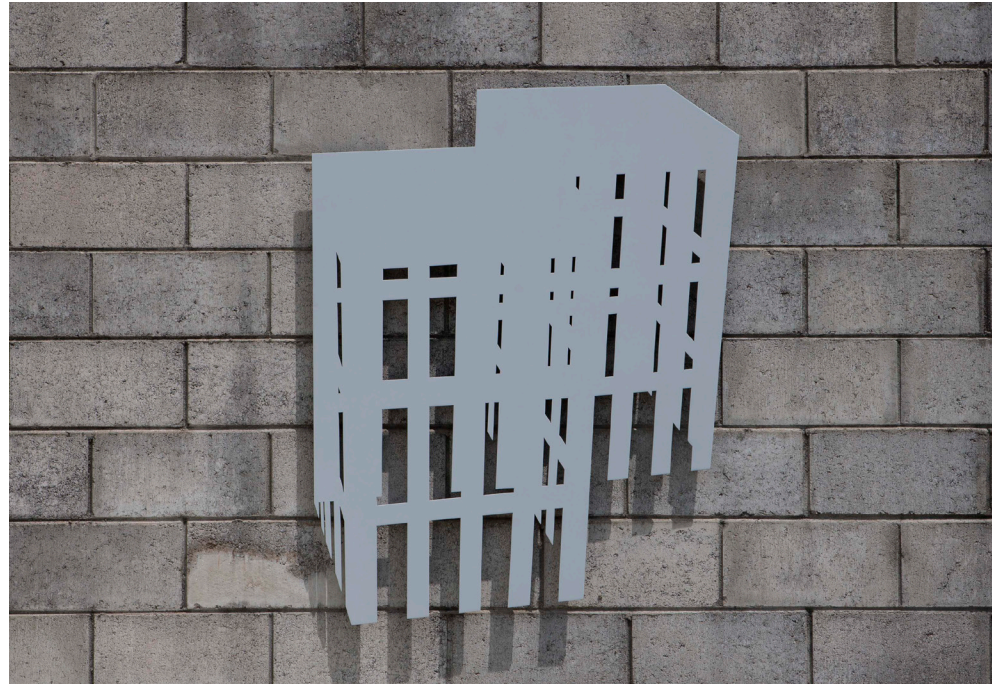
Modellregal_ 120x60xh207.5cm 2003–2021



Three Hands_ 84.9x94.7xh81.5cm FRPx3 1992



Flat Building 002_ 91x88x0.5cm lightgray urethane on Alumininum 2009



Flat Building 003_ 96x116x0.5cm lightgray urethane on Alumininum 2009





Interchange Modellregal_ 120x60xh206cm 2012–2021

DONGYEON KIM (1960-)

1982-1988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1988-1994 Kunstakademie Duesseldorf, Germany

Scholarship / Residencies

1995-1999 Samsung Publishing Co. LTD.

2000 Samsung Foundation of Culture

2008-2011 The Resident Artist, 'Kwon Jin-kyu Atelier'-
Korea National Trust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Selected One Man Shows

2022 The Holy City 2022, Total Museum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2016 Time capsule 1993-2016, Gallery Konrad Monter, Meerbusch-Ostrath, Germany

2014 Wahrnehmung des Anderen, Gallery Marie-Luise Fellner von Feldegg, Krefeld, Germany

2013 Bo.9-13/E-H, Kunstverein Bochum, Germany

2012 Working Time, Museum Goch, Germany

2011 Beautiful Fe@r, Dortmunder Kunstverein, Germany

2009 Beautiful Fear, Hakgojae Gallery, Seoul, Korea

2008 Story of House, Kunstverein Heinsberg, Germany

2007 Kleine Wahrheiten, Galerie für Zeitgenössische Kunst
Marie-Luise Fellner von Feldegg, Krefeld, Germany

2006 The Holy City, Darmstadt Kunsthalle, Germany
Flying City, Kunstverein Hattingen, Germany

2005 The Holy City, Stadtmuseum Beckum, Germany
The Holy City, Museum Goch, Germany
Venus, Gallery Gaby Kraushaar, Duesseldorf, Germany
The Holy City, Gallery Januar, Bochum, Germany

2004 Wahrnehmung des Anderen, Galerie für Zeitgenössische
Kunst Marie-Luise Fellner von Feldegg, Krefeld, Germany
The Holy City, Gallery Gaby Kraushaar, Duesseldorf, Germany
Raum und Körper, Städtisches Gallery Kaarst, Germany

2003 In the Kitchen, Gallery Maier-Hahn, Duesseldorf, Germany

2000 Leukos-hell, weiss, licht, Städtisches Museum Gelsenkirchen, Germany

1995 Total Museum Contemporary Art, Jangheung, Korea



Interchange Modellregal_ 169.8x55xh153cm 2012~2021

Selected Group Shows

- 2021 "Die Ambivalenz bekommt jetzt eine Richtung" Lachenmann Art Gallery, Frankfurt, Germany
 "CROSOVER" KUMA Museum, Seoul, Korea
 "Kontrast" QQART Gallery, Hilden, Germany
- 2019 Exchange of Hongkong Education University CCA Gallery, HongKong
- 2018 Eine Gesichte von Leidenschaft und Frundschaft, Museum Goch, Germany
 Hand Baggase, KUMA Museum, Seoul, Korea
 Third Wave 2018, Kaarst City Gallery Kaarst, Germany
- 2017 Exchange of Hongkong Education University, CCA Art Gallery, HongKong
 mento+mentee, Hanwon Museum, seoul, Korea
- 2016 As the Moon waxes and wanes, (30 years 1986-2016), MMCA Gwacheon, Korea
- 2015 INTERCHANGE, Gallery52, Duisburg, Germany
- 2014 Image of Museum, Dong-Duk Women University Museum/Gallery, Seoul, Korea
- 2013 NIVATOUR2(Korea-Nigeria: A friendship over decades)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 2012-2013 (Im) Possible landscape, Plateau, Seoul, Korea
- 2012 ALLES NUR FASSADE, Back & Eggeling, Duesseldorf, Germany
- 2011 EINSICHTEN Museum Goch, Germany
- 2010 LANDPARTIE Stadtmuseum Beckum, Germany
 20th anniversary Exhibition(Library Project), Kumho Museum, seoul, Korea
 ACCROCHAGE-2 Gallery Fellner von Feldegg, Krefeld, Germany
- 2008 Expenditure, Busan Biennale 2008, Busan Museum of Art/Yachting Center, Busan, Korea
 Yudalsan Open-Air Sculpture Park, Mokpo, Korea
 9 Ausstellung im Bildungszentrum, Thyssenkrupp Steel, Duisburg, Germany
- 2007 Schwartzer Salon, Galerie fur Aktuele Kunst da-entlang, Dortmund, Germany
 The Wind from East, Rathaus Kaarst-Galerie, Kaarst, Germany
 The committee of Tokyo - Seoul seconds Art Message, Tokyo Gakigei Artcenter, Japan
- 2006 Small Voice Sounds Big,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Young-dong Open-Air Sculpture Park, Korea
 PRE-OPEN, Kyunghee University Museum, Seoul, Korea
- 2005 Jahresausklang 2005, Galerie fur Zeitgenossische Kunst,
 Marie-Luisr Fellner von Feldegg, Krefeld, Germany
- 2004 Sculpture Project, Busan Biennale 2004, Korea

